

제8951호 대표전화 (062) 650-2000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음력 5월 28일)



'정검다리 출입금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22일 오전 북구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 인근에서 광주환경공단 관계자가 전날까지 내린 비로 인해 짧은 정검다리 출입금지 펜스를 점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 할 것으로 예보됐다. /김애리기자

“준공영제 근본 대책 다시 세워라”

광주 시내버스 파업 13일만에 종료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13일 만에 마침내 종료됐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민 불편이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면담한 후 임단협에 상호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임단협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62세로 연장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의에 노사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 임금 및 채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협의 등이 골자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해 21일부터 전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내버스파업으로 버스운행률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에 그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현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

노사 임단협 타결… 市 중재안 수용
기본급 3% ↑ · 정년 62세 연장 합의

노사 참여 ‘대중교통혁신회의’ 가동
요금·임금·구조 개선 등 논의키로
준공영제 재검토 건전성 확보 시급

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노사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 광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파업 사태가 준공영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만큼 단기 봉합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을 위해 민간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 배차, 낮은 운행률, 고정적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매년 천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버스업체에 지원한 누적 금액만 1조800억 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커지는 데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는 추세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불투명한 경영 구조, 지속되는 적자 운영에 따른 시 예산 투입으로 시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버스 운행체계 공익성 강화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으나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폐지 기로에 놓았다.

준공영제의 ‘혈세 누수’ 구조와 노조 중심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파업 → 지원금 확대→요금 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본회의 폐 회사에서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2007년 196억원에서 2024년 1천402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며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해 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노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요금 현실화, 노선 효율화 등 준공영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12회 무등산 문화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짚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 ① 시
-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 ~ 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화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준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알 림

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시·도민 페스티벌

7월5일 오후 7시 광주 5·18민주광장
금남로·총장로 일원 ‘걷기 퍼포먼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9월5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도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진행됩니다.

이날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식전 행사와 개회식에 이어, 참가자들이 LED 촛불을 들고 금남로·총장로 일원을 돌며 걷기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세계 양궁의 메카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도민 페스티벌에 지역민의 의지를 담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기 위해

- 일 시: 2025년 7월5일(토) 오후 7시~8시30분
- 장 소: 5·18민주광장 및 금남로·총장로 일원
- 접수 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 및 현장 접수(선착순 800명)
- 참가 문의: 광주매일신문(062-650-2079)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후원: (사)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美, 이란 핵시설 3곳 전격 공습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

양국 미사일 공방·후티, 美 공격 예고

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왔다 점에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에 따라 확전이나, 조기 종전이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에 나섰다. AFP 통신은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인용, 이란군이 ‘정직한 악수3’ 작전의 20번째 공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 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 센터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즉각 미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Today

‘삭감’ 에너지공대지원금 다시 증액 4면

“전두환이 자랑스럽다니…” 개탄 6면

이의리가 돌아왔다…7월 대반격준비 16면

12회
무등산
문화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짚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 ① 시
-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 ~ 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화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기준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